

KIA 권다결 “공격형 포수로 내 자리 찾겠다”

마무리캠프에서 자신감 되찾으며 ‘신일고 포수’ 감각 되살려
팔꿈치 수술·군 복무 공백 딛고 공·수 겸비 포수 재도약 다짐



“포수는 내 운명.”
KIA 타이거즈의 포수 권다결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권다결은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 참가해 ‘진짜 포수’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

신일고 출신의 권다결은 지난 2021년 2차 4라운 드 34순위의 지명을 받으면서 많은 기대 속에 KIA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데뷔 첫째 깜짝 프로 데뷔전도 치렀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당시 안방을 지키고 있던 한승택과 김민식이 경기를 앞두고 밀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고졸 신인 포수가 급히 데뷔전에 나선 것이다.

동기 이외리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권다결은 2-0 무실점 승리를 이끌면서 눈길 끄는 데뷔전을 치렀다. 이 경기 포함 데뷔 첫 해 1군 5경기에 출전한 그는 2022시즌에는 2경기 출장에 그쳤고, 이후 1군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다.

군 복무와 팔꿈치 인대 부상 등이 겹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포수’ 고민이 생겼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이름도 바꿨다. 권혁경이 입단 당시 그의 이름이다.

권다결은 “운 좋게 신인 때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프로와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많이 소심해졌다. 성격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포지션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키가 컸다. 포수 치고는 키가 큰 편이라서 투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포수로 매력적 없나’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포지션을 하면 더 빨리 1군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돌아봤다.

권다결은 마무리캠프를 터닝포인트로 삼았다. 그라운드에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끌고 가던 ‘신일고 포수’의 모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권다결은 “내년 시즌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마무리캠프에 참가했고, 포수를 안 할 바에는 야구를 안 한다는 생각으로 훈련했다”며 “캠프를 치르면서 많이 좋아졌다. 캠프에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훈련하면서 내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테랑’ 김태균과 함께 한준수, 주효상이 버티고 있는 안방에서 권다결은 공수 밸런스로 어필 무대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권다결은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지난 7월에 재활을 끝냈다. 복귀 후에 퓨처스에서 두달 동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퓨처스에서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다. 풀타임 뛰고 땀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도루 저지가 가장 자신 있다. 어깨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야구를 해왔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형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팀 내 포수 뒷순위로 밀렸다. 그 순위를 하나하나 따라잡아야 한다.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행동으로 시합 때 보여주겠다”며 “포수라고 수비만 잡하는 포수 매력 없다고 생각한다. 방망이도 잘 쳐야 값어치도 있다. 공격과 수비 두 개를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부상에서 벗어난 KIA 포수 권다결이 원점에서 안방 도전에 나선다. 지난 11월 일본 마무리캠프에서 진행된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포수로 출전한 권다결.

한국 선수 MLB 도전사

이상훈 ‘문 열고’ 류현진 ‘판 키우다’

포스팅시스템 통해 10명 진출

송성문(29)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면서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KBO리그 출신 한국 선수는 모두 10명이 됐다.

포스팅시스템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가 MLB에 진출할 길을 열어둔 제도로, MLB는 1998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일본프로야구(NPB) 등과 협정을 통해 포스팅시스템을 구축했다.

초기 포스팅시스템은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뤄졌다.

MLB 30개 구단은 비공개 입찰액을 적어냈고,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팀이 독점 협상 기회를 얻었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해외 진출을 노린 최초의 한국 선수는 ‘야생마’ 이상훈이다. LG에서 뛰던 이상훈은 1998년 2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다. 보스턴이 써낸 입찰 최고액이 60만달러에 그쳐 미국 진출이 무산됐다.

두산에서 뛰던 진필중은 2022년 2월 옹할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해 12월 재수를 택했으나 옹찰액 2만5000달러가 나오면서 꿈을 접었다.

삼성에서 뛰던 임창용 역시 옹찰액 65만달러에 그쳐 포기했다. 이후 임창용은 일본프로야구를 거쳐 MLB 시카고 컵스에 입단해 빅리그의 꿈을 이뤘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에 진출한 첫 선수는 최향남이다. 2009년 롯데에서 뛰던 만 39세의 최향남은 101달러라는 상징적인 금액의 입찰액으로 세인트루이스와 마이네리그 계약을 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한국 선수들의 빅리그 도전 역사는 2012년 전환점을 맞았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류현진(한화)이 당시 역대 MLB 포스팅 금액 4위에 해당하는 2573만7737달러33센트의 거액을 제시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했다.

자극받은 김광현(SSG), 양현종(KIA)도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 진출을 노렸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받고 한발 물러섰다.

투수들의 전유물로 잡히던 포스팅 시스템은 2014년 강정호(은퇴), 2015년 박병호(키움 코치)가 거액의 포스팅 금액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강정호는 500만2015달러의 입찰액을 적은 피츠버그와 4년 1100만달러, 박병호는 이적료 1285만달러를 제시한 미네소타와 4년 1200만달러에 입단 도장을 찍었다.

포스팅시스템은 2018년 비공개 입찰 방식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정됐다. 원소속팀에 지불하는 입찰액, 즉 이적료는 선수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졌다.

2020년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하면서 새 포스팅시스템에서 MLB에 진출한 1호 선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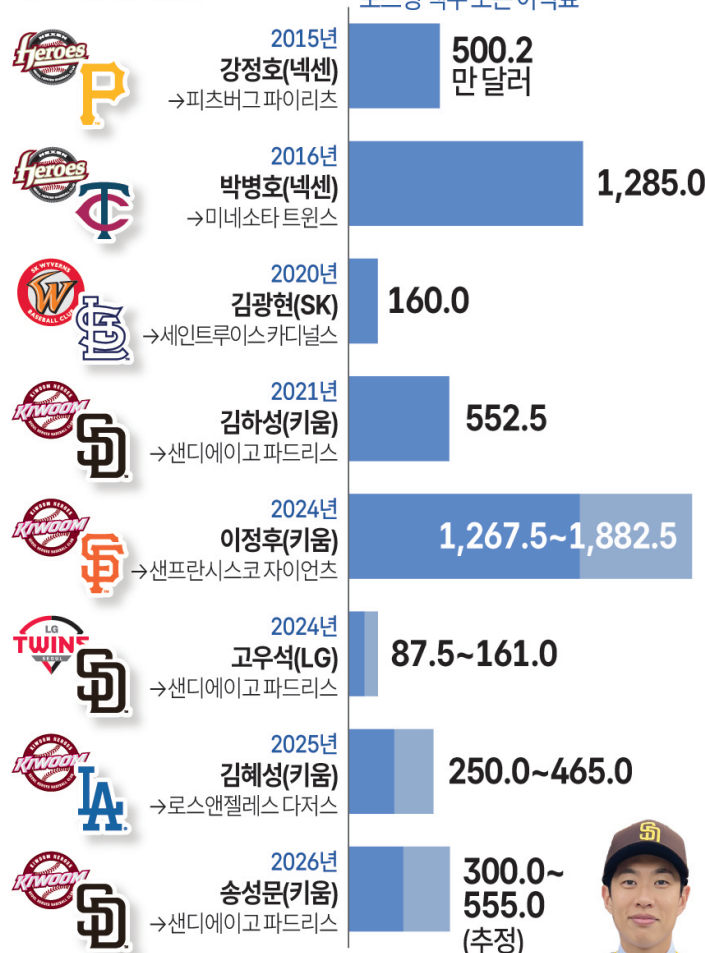
당시 김광현은 2년간 보장 금액 800만달러에 계약해 소속팀 SK(현 SSG)는 이적료 160만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

2021년부터는 키움 출신들이 줄줄이 MLB에 진출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달러의 보장 계약을 한 김하성(애들랜트)은 키움에 이적료로 552만5000달러를 안겼고, 이정후(샌프란시스코)는 2023년 6년 1억1300만달러에 도장을 찍어 키움은 이적료 최대

최근 한국프로야구 출신 MLB 포스팅 결과

자료: AP 통신 등 외신 종합



※ 이정후, 고우석의 포스팅비는 옵션에 따라 변동.
김해성, 송성문 이적료는 옵션 실행 여부에 따라 변동.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계약 내용

4년 1,500만달러(약 222억 원)로 추산
3년(보장 계약)+1년(선수 옵션)+1년(상호 옵션)



인센티브: 신인상 100만 달러, 최우수선수(MVP) 투표 5위 안에 포함시 추가로 남은 계약 기간 연봉에 100만 달러씩 추가 등 최대 1,100만 달러

연합뉴스

*구단과 선수가 모두 합의해야 계약이 연장

1882만5000달러를 받게 됐다.

지난해엔 LG에서 뛰던 고우석이 포스팅 시스템으로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고, 올해엔 김해성이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달러에 사인했다. 키움의 가장 많은 6명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로 보냈고 LG, SSG, 한화, 롯데에서는 1명씩 나왔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23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송성문, 샌디에이고 입단...4년 222억원

“생산성 높아 다양한 역할 기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한 송성문(29)이 23일 귀국했다.

지난 19일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송성문은 샌디에이고 입단을 확정하고서 이날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돌아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23일 송성문과 4년 계약 사실을 발표했다.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날 AP통신은 4년에 1500만달러(약 222억원)로 추산했다.

밝은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송성문은 “기사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마이네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샌디에이고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타율 0.315, 홈런 26개와 도루 25개, 90타점을 기록한 송성문은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 마감 시간인 22일 오전 7시 이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송성문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올해 초 김해성에 이어 통산 6번째로 포스팅 절차를 거쳐 MLB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야수가 됐다.

샌디에이고 A.J. 프렐러 단장은 송성문에 대해

“매우 생산성이 높은 선수”라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유심히 지켜본 선수”라며 “2년간 그의 경기력은 일취월장했다”고 평가했다.

샌디에이고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송성문은 올해 가장 매력적인 외국 리그 출신 자유계약선수(FA) 중 한 명이었다”며 “KBO리그에서 3루수 올스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 등의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어 “송성문의 활용 방안은 프렐러 단장의 선수단 구성이 끝나야 명확해질 것”이라며 “벤치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는 유틸리티 역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전 2루수인 제이크 크로넬워스가 1루수 또는 유격수를 보고, 송성문이 2루를 맡는 방안이나 30대 중반을 향하는 3루수 매니 마차도와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의 후속일 또는 지명타자 기용일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송성문은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덕에 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다.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뛰며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성장했다. 나도 그 길을 따르고 싶다”며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루수뿐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게, 비시즌에 열심히 준비하겠다.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들어가고 최대한 많은 타석에 서는 게, 현재 내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